

정부의 항만개발정책에 관한 평가연구

김성득*

국가의 총체적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수행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특히,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민간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부 고유의 역할이다.

정부는 여러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1980년도 이후 급격히 증대되어온 해운물동량과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대에 대비하면서 장내의 시설수요를 예측하고 현실에 닥치는 물류적체 해소를 위하여 부산항 3단계 공사등 긴급한 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항만적체 등으로 인하여 산업활동이 막대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간의 정부의 긴축재정운용 때문이기도 하지마는 사회간접자본의 이윤 창출에 대한 인식부족, 정치적 배려 등과 장기적 안목의 총체적 계획의 부재 또는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국내항만시설의 현실과 정부의 계획을 보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항만 물동량의 예측의 오류

둘째, TWO PORT SYSTEM의 경직성

셋째, 지역산업과 관련한 연,근해 컨테이너 처리 항만의 개발육성

넷째, 지역 컨테이너 항만의 활성화는 지역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정부는 이러한 지역 항만의 자율적 발전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달성하여야 함.

다섯째, 지역안배가 아닌 역할분담의 개념에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개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울산대학교 토목공학과